

투자전략 이슈

2023 경제정책방향: 신성장 4.0

분석의 기본 가정

- 통화긴축 가속화로 인한 유동성 충격 지속: 경기침체 우려, 크레딧 리스크 모니터링
-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물가 안정, 물자 안보 정책이 핵심, CAPEX 사이클 전망

투자전략/자산배분 박소연

T.02)2004-9095 / park.so-yeon@shinyoung.com

시사점 1: 세심하게 설계된 채권시장 안정책

2023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어려운 시기인만큼 거시경제 안정성 관리와 민생 회복 대책 등이 다수 나열됐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채권시장 안정화 대책이었다. 상당히 세심한 설계들이 눈에 띄었는데 기존에 발표된 정책들은 LCR 상향 유예나 예대율 규제완화 등 소극적 유인책에 가까웠다면, 이번에 새로 나온 정책들은 적극적 유인책으로 보인다.

일단 2023년 국고채(한전채 포함) 발행을 대폭 축소하고 1분기 만기도래하는 지방채/공사채 중 상당량을 차환없이 순상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채권투자 저변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회사채에 투자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하이일드 펀드가 저신용 채권(BBB+ 이하)을 45% 이상 편입할 경우 분리과세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잉여자금의 채권시장으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다. 미국 금리인상이 내년 초까지 이어지겠지만, 동 대책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2: 부동산 연착륙, 전세가 안정이 관건

향후 거시경제 최대 리스크 요인 중 하나가 부동산인만큼 관련 규제 완화가 대대적으로 포함됐다. 다주택자 규제가 많이 완화됐는데 1) 주담대도 풀리고(기존 금지→LTV 30% 적용으로 수정), 2) 취득세 증과도 완화됐다(3주택의 경우 8%→4%로, 4주택 이상은 12%→6%로 하향). 또한 3) 분양권과 주택임주권 단기 양도세율도 1년 미만의 경우 70%에서 45%로 낮아지고 1년 이상은 아예 폐지된다. 실수요자를 위해 전매제한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도 푼다.

아울러 부동산PF 관련해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 보증을 신설하고, PF ABCP(만기 3개월)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자보증 상품을 내놓아 미분양 사태를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이러한 규제 완화책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전세가 하락이 멈추는 것이 선결 조건인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시사점 3 : 신성장 4.0 전략과 공급망

60페이지가 넘는 자료에서 가장 방점을 찍어 강조한 것 중 하나가 민간중심 활력 제고와 신성장 4.0 전략이다.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장을 위해선 기업투자가 나와줘야 하기 때문이다.

1)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일괄 10%로 상향하고(기존에는 3~4% 불과), 2) 원전/해외건설/방산 등 인프라에 대해 정부가 수주를 총력 지원하고 3) 우주항공 SMR, 양자역학, 바이오헬스, 로봇 등 15대 핵심 프로젝트로 선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R&D 지원을 통해 적극 돕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자원안보법, 경제안보공급망법을 2023년 상반기 중 제정해 소재/부품/장비 수입 대체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직은 각 부처별로 구체화된 계획이 더 나와줘야 하겠지만 반도체 등 세액 공제폭에 대한 여야 합의가 관건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 방점이 내수보다는 수출, 더 나아가 공급망과 기업투자 활성화에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도표 1. 2023년 경제정책방향 : 신성장 4.0 전략 추진에 방점



자료 : 기획재정부

총평 : 신성장 4.0 전략과 공급망

채권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연착륙 관련 정책은 고심한 흔적이 여기저기 보일 정도로 세심한 설계가 눈에 띄었다.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안정화와 기업투자 활성화, 방산/원전 수출 관련된 부분도 정부가 직접 하드 캐리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였다. 다만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고착화로 인한 나비효과는 우리가 제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2023년에도 여전히 글로벌 매크로 환경과 디레버리징 여파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Compliance Notice

이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항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항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항목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